

# 정부 예산 끊어...기댈 곳 사라진 외국인노동자

### 외국인 지원센터 광주 4곳·전남 4곳 등 전국 44곳 문 닫아

### 외국인 노동자 늘린다면서...거꾸로 가는 정책 비판 목소리

광주·전남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센터)가 정부의 예산이 끊김에 따라 모두 문을 닫았다.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로 외국인노동자를 들인다고 해놓고 정작 이들을 지원하는 센터의 지원을 중단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베틀목이 사라진 것이다.

17일 광주시 광산구 흑석동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입구에는 지난 1일부터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안내문에는 '지난 1일 자로 고용노동부에서 센터 운영을 폐지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지난 2014년에 문을 열고 광주·전남 외국인노동자들의 정착을 도운 센터가 10년만에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센터가 문을 닫는 이유는 정부가 전국 센터에 지원하는 예산(71억원)을 없앴기 때문이다. 결국 광주센터를 포함한 전국 거점 9곳과 소지역 35곳(광주 3곳·전남 4곳) 등 총 44곳의 지원센터가 업무를 중단했다.

각 센터는 한국어 교육, 생활·법률·직업 관련 정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임금제

불, 업주의 의한 인권 문제 등이 발생 할 경우 외국인노동자들이 센터를 직접 찾아와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노무사를 통한 사업자 변경과 산업재해 상담도 진행할 수 있으며 비자문제도 센터 내 직원들이 구비 서류 등을 안내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도왔다.

이를 위해 광주센터에는 필리핀어, 네덜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크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의 통역이 가능한 직원 5명이 상주했지만 이들도 실직자가 됐다.

정부가 올해부터 외국인 노동자 인력을 16만 5000명까지 늘려 식당에도 외국인을 고용 가능케 하겠다고 했지만,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센터의 예산을 끊어 외국인 노동자지원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센터에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다.

6년 전 고용허가제로 베트남에서 한국에 온 A



17일 광주시 광산구 흑석동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1월 1일부터 센터 폐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30)씨는 "처음 베트남에 와서 막막할 때 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 세금감면부터 비자문제, 한국어 수업까지 센터에서 도움을 받아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었다"면서 "한국 생활의 큰 베틀목이었던 센터가 사라져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다"고 막막함을 토로했다.

지난해 7월에 광주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

는 B(36)씨도 "한국에 와서 어디서 지내야 할지 막막했는데 센터를 통해 공동체를 안내받아 쉴 곳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센터가 없어졌다는 소식에 같이 일하는 고향 친구들도 크게 당황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의 대안으로 올해 18억원을 들여 9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칭 사업 추진에 나섰다.

광주시는 이달 중 4억원(국·시비 각2억원)의 예산으로 지역 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업체 공모에 나선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일손이 필수인 전남도는 포함되지 않아 전남도의 외국인노동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센터에서 일했던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센터가 사라짐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처지"라면서 "결국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센터가 사라짐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고 행정 절차 등을 해결해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고 말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에 문제가 생겨도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외국인 노동자는 임금착취, 브로커, 장시간 노동, 여권압수 등의 인권문제에 취약하다"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18일 오전 11시 전남경찰청 앞에서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계절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착취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술 못 마시게 하자 흥기로 아내 찢러 숨지게 해

### 광주북부경찰 60대 검거

20여 년간 가정역할을 해온 아내가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하자 흥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20분께 아내를 흥기로 찢러 숨지게하고 도주한 A(63)씨를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께 주거지인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58)씨를 흥기로 찢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술 좀 그만 마시라'며 병원에 입원

할 것을 권유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흥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흥기에 찢려 아파트 계단으로 도주하는 B씨를 따라가 재차 흥기를 휘둘렀다. 이 모습을 본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2시간여 만에 주거지 근처에서 붙잡혔다.

A씨는 20여 년전 건강에 문제가 생겨 쓰러진 뒤 장애로 일을 하지 못했고 B씨가 보험설계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사건 브로커' 수사정보 유출

### 검찰수사관 구속영장 청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전날 광주지검 A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수사관이 사건브로커 성씨 등의 청탁을 받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목포지청 6급 B수사관이 성씨로부터 13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검찰이 수사 중인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수사관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수사관은 현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구속재판을 받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명문 야구부 진학 돕겠다"

### 야구부 감독 학부모에 돈 뜯어

'명문 운동부가 있는 중학교로 아이가 진학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초등학교 학부모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야구부 감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학부모 10여명에게 '자녀들을 주전으로 경기에 뛰게 해주겠다'거나 '명문 중학교 야구부로 진학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유촌동 물류창고에서 불 17일 오전 광주시 서구 유촌동의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나 긴급 출동한 소방에 의해 30여분 만에 꺼졌다. /김진수 기자 jeans@

### 배관 탄 도둑 있다

### 주민 신고로 잡고보니

### '던지기' 마약 유통범

### 서부경찰 2600명분 마약 적발

광주서부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류 소지·운반) 혐의로 마약 전담책 A(42)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밤 9시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일대에서 일명 '던지기' (특정 장소에 숨겨두면 찾아가는)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 담장에 설치된 가스배관에 매달려 있다 도둑으로 착각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털미를 잡혔다.

A씨는 체포 당시 4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숙박 중인 모텔 객실에서 22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엑스대마 등 마약류도 추가 발견했다.

A씨는 SNS 등을 이용해 워선으로부터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을 돌며 350여회에 걸쳐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빛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 판매책(워선)과 매수자 등을 추적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